

안녕하세요! 밋입니다! 까다로웠던 '빈칸 유형'을 지나, 오늘 '영어 유형별 풀이법 4탄'에서는 '순서배열'과 '요약'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시간 단축을 위한 영어 한 방 풀이법' 칼럼에서 설명드린 표현들을 숙지하셔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돌아와주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량상 꼼꼼하게 해석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걸 도구로 삼아 풀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글을 읽으셨으면 합니다!)

'순서배열' 유형도 다른 모든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글의 소재나 주제를 잡아낸 후 논리적인 흐름을 추론하며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유형을 풀이하실 때 기억해야 하는 건 이 2 가지입니다!

1. 박스를 읽으며 글의 소재, 주제, 방향성 최대한 체크하기! 특히 **마지막 문장** 꼼꼼히 읽기!
2. 글의 방향성 따지기!(화제가 바뀌는지, 어떤 주제나 소재에 대해 긍정(부정)에서 부정(긍정)으로 넘어가는지 등)
 - ➔ 글의 방향성을 따지는 방법 : 논리적인 흐름을 이끌고 가는 '연결어(However, For example, Therefore...), 지시 형용사(this, that...), 지시 대명사(this, that...), 인칭대명사(they, their...), 부사어(also, instead...), 관사(a(n)/the) 등' 유의하며 읽기!
 - ➔ 여기서 '관사(a(n)/the)'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처음 나오는 명사 앞에는 관사 'a(n)'가 붙고, 지문에서 또다시 그 명사가 언급될 때는 관사 'the(그)'가 붙는다'

이 말 많이 들어 보셨죠?

물론 위의 경우처럼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순서배열 문제의 난이도가 확 낮아지기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나오는 명사의 관사는 무조건 'a(n)'이고 두 번째 등장부터는 'the'를 사용한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처음 나오는 명사의 앞에도 'the'가 쓰일 수 있거든요! 즉, 관사 'the'가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를 또 다시 받아주는 관사로 쓰인 건 아니니 주의해주세요!

➔

그럼 2023 학년도 6 월 고 3 모의평가 36 번 '순서배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게요!

여기서 노란 형광펜은 박스 안의 문장 중 '핵심 소재나 주제를 드러내는 문장'을,
푸른 형광펜은 '일차로 읽었어야 하는 문장'을,
분홍색 형광펜은 '다시 올라가서 읽어야 하는 문장'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36~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6.  -> 핵심
 -> 일차
 -> 이차

"The fossil record provides evidence of evolution." The story the fossils tell is one of change. Creatures existed in the past that are no longer with us. Sequential changes are found in many fossils showing the change of certain features over time from a common ancestor, as in the case of the horse.

- (A) If multicelled organisms were indeed found to have evolved before single-celled organisms, then the theory of evolution would be rejected. A good scientific theory always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rejection. The fact that we have not found such a case in countless examinations of the fossil record strengthens the case for evolutionary theory.
- (B) The fossil record supports this prediction — multicelled organisms are found in layers of earth millions of years after the first appearance of single-celled organisms. Note that the possibility always remains that the opposite could be found.
- (C) Apart from demonstrating that evolution did occur, the fossil record also provides tests of the predictions made from evolutionary theory. For example, the theory predicts that single-celled organisms evolved before multicelled organisms.

- (A) - (C) - (B)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C) - (B) - (A)

일단, 박스 안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첫 문장은 이 글의 핵심 소재를 담고 있기에 노란 형광펜을 그었고, 순서배열에서 마지막 문장은 다음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문장이기에 또 표시해 두었습니다. 분량상, 형광펜 부분만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기록’은 진화의 증거를 제공한다.’

‘일련의 변화’는 말의 경우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통의 조상들로부터 특정한 특징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많은 화석에서 보여진다.**

박스 안 문장을 읽으면서 **‘앞으로 ‘화석 기록’과 ‘진화론’과의 관계를 유심히 봐야겠군!**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글의 핵심 소재/주제를 잡은 후 마지막 문장까지도 꼼꼼히 읽으면서 앞으로 이어질 **(A), (B), (C)의 첫 문장과의 연결성**을 잘 따지셔야 합니다!

그럼 **(A) 문단**의 푸른 형광펜 문장을 읽어볼게요!

‘만약 다세포 생물이 단세포 생물보다 먼저 진화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진화 이론은 거부될 것이다.’

-> 첫 문장을 읽었을 때 **‘갑자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뒷 문장을 살짝 보니(두 번째 푸른 형광펜 부분) **‘진화 이론 거부의 가능성’**에 대한 말을 하고 있네요!

앞의 박스에서는 **‘화석과 진화의 (+)적인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제가 살짝 전환되어 진화 이론의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A)번은 확실히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A)에 **X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스 안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 경우,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 알파벳에 X 표시나 세모(확신이 안 설 경우)를 해둡니다!

그럼 **(B)문단**으로 내려와 볼게요! 마찬가지로 푸른 형광펜 부분을 간단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기록은 이러한 예측을 지지한다 - 다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의 출현 후에 발견되었다.’

-> “다세포 생물? 아까 봤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잘하신 거예요!
아까 (A) 문단에서 다세포 생물과 단세포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A) 문단에서는 다세포 생물이 단세포 생물보다 먼저 진화했다는 걸 가정했었는데 (B) 문단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여기서 (A)번은 If로 시작되었기에 (B)보다 앞부분에 오긴 힘들어요!
따라서 '아~ A가 B보다는 뒤에 있겠군!'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낄 수 있는 선지들에 먼저 표시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B)의 마지막 문장인 분홍색 형광펜 부분을 먼저 읽으셔도 되고 이차로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순서배열 문제를 풀 때 일차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크게 살펴본 후 꼼꼼하게 읽는 편이라 분홍색 부분은 (C)까지 다 읽은 후 다시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C) 문단을 읽어볼게요!

'진화가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도 '화석 기록'은 또한 진화 이론으로부터 만들어진 예측들의 테스트를 제공한다.

여기서 **'also(또한)'**에 빨간 박스를 쳐 놓았는데, 그 이유는 이 **'also'**에 의해 글의 초점이 살짝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박스 안에서는 **'화석기록'이 진화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C) 문단에서는 이제 화제를 살짝 바꾸어 **'진화 이론의 예측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려 하네요!

그럼 (C) 문단 뒤에는 관련 설명이 와야 하므로 순서 중 가장 마지막에 올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C)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 그 이론은 [단세포 생물들은 다세포 생물 이전에 진화했다]라는 것을 예측한다.

인데요, 이 문장을 통해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여기서 처음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답이 **(C)-(B)-(A)**이겠네요! 그래도 한 번 확인은 해야 하니까 아직 읽지 않은 **(B) 문단의 분홍색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석 기록은 이러한 예측을 지지한다 - 다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의 출현 후에 발견되었다.' **'반대로 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인식해라.'**

'반대'라는 건 단세포 생물보다 다세포 생물이 앞선 다는 얘기겠죠? 그럼 (A) 문단이 (B) 문단 바로 뒤에 와야 한다는 것이 확정됐네요! 따라서 답은 (C)-(B)-(A)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021 학년도 9 월 고 3 모의평가 37 번 순서배열 문제'도 풀어볼게요!

37.

Recently, a number of commercial ventures have been launched that offer social robots as personal home assistants, perhaps eventually to rival existing smart-home assistants. *Social robots vs existing smart-home assistants*

(A) They might be motorized and can track the user around the room, giving the impression of being aware of the people in the environment. Although personal robotic assistants provide services similar to those of smart-home assistants, their social presence offers an opportunity that is unique to social robots.

(B) Personal robotic assistants are devices that have no physical manipulation or locomotion capabilities. Instead, they have a distinct social presence and have visual features suggestive of their ability to interact socially, such as eyes, ears, or a mouth.

(C) For instance, in addition to playing music, a social personal assistant robot would express its engagement with the music so that users would feel like they are listening to the music together with the robot. These robots can be used as surveillance devices, act as communicative intermediates, engage in richer games, tell stories, or be used to provide encouragement or incentives. [3점]

* locomotion: 이동 ** surveillance: 감시

-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박스 안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노란 형광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해석해보면

'사회적 로봇'을 개인용 가정용 도우미로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는데 이 사회적 로봇들은 아마도 기존의 스마트 홈 도우미와 경쟁할 것이다.

입니다. 그럼 '이 사회적 로봇과 기존에 존재하던 스마트 홈 도우미 간의 차이점을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해요!

(A) 문단은 'They'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박스에서 읽었던 사회적 로봇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스마트 홈 도우미일 수도 있겠네요! 아직 확실치 않으니 'They'를 '그들'로 두고 간단히 해석해보면

'그들은 환경 안의 사람들을 감지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동력화 될 수 있고 방 근처에 있는 사용자를 추적할 수도 있다.'

이네요! 다 읽어보니 '그들'은 '사회적 로봇'인 것 같죠? 박스 바로 뒤에 와도 될 것 같고... 애매하니까 (B) 문단도 읽어봅시다!

(B) 문단을 보시면 제가 알려드렸던 핵심 표현들 중 하나인 'not A but B'가 쓰였네요! 단지 'no'와 'instead'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그럼 (B) 문단은 다 읽어볼게요!

'개인용 로봇 도우미는 신체조작이나 이동 능력은 없지만 그들은 뚜렷한 사회적 존재감이 있고 이목구비처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암시하는 시각적인 특징이 있다.'

개인용 로봇 도우미, 즉 앞서 언급된 '사회적 로봇'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박스 안에서는 '사회적 로봇'이란 게 있다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B)에서 이 로봇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따라서 (B) 문단이 제일 앞으로 오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독자들에게 앞으로 다를 '사회적 로봇'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나서야 다른 설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럼 (C)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재생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적 로봇은 사용자가 로봇과 함께 그 음악을 듣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음악과의 교감을 표현한다.'

(B) 다음에 (C)가 나오는 건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B)에서 '시각적인 특징'에 대한 이야기로 단락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C)의 예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럼 (A)에서 보지 않은 부분을 읽으러 위로 다시 올라가봅시다!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해두

있는데요, (A)의 마지막 부분을 간단히 해석해보면

‘비록 개인용 로봇 도우미(사회적 로봇)는 스마트홈 도우미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들(사회적 로봇)의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 로봇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네요! 그럼 그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아까 (C)에서 보셨죠? 따라서 답은 (B)-(A)-(C)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문제만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만큼 발췌독으로 쉽게 풀 수 있는데요, 문제 풀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 요약된 부분 먼저 읽기
2.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지문에서 발췌하기!

간단하죠? 문제를 풀어보면 더 간단합니다! 그럼 2022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40번 문제를 같이 한 번 봐볼게요!

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bilities in transit offer a broad field to be explored by different disciplines in all faculties, in addition to the humanities. In spite of increasing acceleration, for example in travelling through geographical or virtual space, our body becomes more and more a passive non-moving container, which is transported by artefacts or loaded up with inner feelings of being mobile in the so-called information society. Technical mobilities turn human beings into some kind of terminal creatures, who spend most of their time at rest and who need to participate in sports in order to balance their daily disproportion of motion and rest. Have we come closer to Aristotle's image of God as the immobile mover, when elites exercise their power to move money, things and people, while they themselves do not need to move at all? Others, at the bottom of this power, are victims of mobility-structured social exclusion. They cannot decide how and where to move, but are just moved around or locked out or even locked in without either the right to move or the right to stay.



In a technology and information society, human beings, whose bodily movement is less (A), appear to have gained increased mobility and power, and such a mobility-related human condition raises the issue of social (B).

- | | | | |
|----------------------------|------------------------|-----|-----|
| (A) | (B) | (A) | (B) |
| ① necessary…… inequality | ② necessary…… growth | | |
| ③ limited …… consciousness | ④ desirable …… service | | |
| ⑤ desirable …… divide | | | |

먼저 요약 박스를 보시면 **기술과 정보 사회에서의 사람의 특징**에 빈칸이 뚫려있고 이로 인해 촉발된 어떤 **사회적 이슈**에 빈칸이 뚫려있는데요, 보통 지문을 반으로 나눠서 앞 빈칸은 지문의 앞 부분에, 뒷 빈칸은 지문의 뒷 부분에 하나씩 위치해있습니다.

지문을 쓱쓱 읽으시면서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집중해주셔야겠죠? 노란 형광펜 부분에 'human being'이라는 요약박스에서의 단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집중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terminal creatures'라고 불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에 쓴다네요! 그러면 앞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움직임이 덜 필요하다' 즉 'necessary'겠네요!

뒷 빈칸에 들어갈 단어도 찾기 위해 지문의 뒤쪽으로 가볼 게요! 노란 형광펜 부분에 'social exclusion'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겠군요! 따라서 뒷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inequality입니다!

자 이렇게 유형별 풀이법 4 탄도 끝이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삽입과 장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유형별 풀이법 칼럼이 되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밋(mit)

연세대학교 재학중
국어, 영어 과외 40명 이상
대치, 반포 국어 학원 모의고사 전담 조교
강대 k 모의고사 검토진
학습 멘토링 모집 중.....!